

LG, 화학 계열사 전문화 강화

계열4사 2016년 매출목표 50조원 ... 신수종사업 적극 육성

LG그룹의 화학부문이 첨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는 LG화학을 비롯해 하우시스, 생활건강, 생명과학 등 화학4사의 매출을 2016년까지 5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5월29일 발표했다.

4사는 2010년 매출이 24조8810억원을 기록했는데 6년만에 더블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목표 달성에 성공하면, 1947년 럭키크림으로 화학 사업을 시작했던 당시 매출액 3억원에 비해 무려 17만배 가까이 성장하는 셈이 된다.

LG는 특히, 4사를 전기자동차(EV) 배터리, 편광판, 3D용 광학필름, 프리미엄 화장품, 첨단 창호, 바이오 신약 등을 생산하는 신수종사업의 전진 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LG화학은 세계 1위인 LCD(Liquid Crystal Display) 편광판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3D용 광학필름(FPR) 매출도 본격화한다.

편광판은 정밀 코팅과 점착 등 필름가공 기술과 광학설계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소재로, 머리카락 2-3개 굵기밖에 되지 않는 0.3mm의 초박막 필름 안에 여러 장의 기능성 필름이 쌓여있는 초정밀 제품으로, 2000년 매출 60억원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2조원 이상의 대형 사업으로 성장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3D용 FPR도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LG는 지금까지 일본이 광학필름 분야를 주도하고 한국이 추격하는 양상이었지만, 3D용 광학필름은 LG화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현재까지 확보한 10개 이상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저에 대한 공급물량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배터리 분야에서만 매출 4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제품 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표 화장품 <숨>은 물론 천연 허브 화장품으로 국내 최초로 유럽에 진출한 <빌리프>와 줄기세포 화장품 등을 통해 프리미엄 라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LG하우시스는 진도 7에 건지는 <한국형 커튼월>을 국내 최초로 생산했고, 알루미늄 창호 시장도 적극 공략해 매출을 2010년 1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 2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방호창 시장에도 주목해 미국의 공인 테스트 기관인 ATI(Architectural Testing Inc.)로부터 방폭성능 최고 등급을 받았고, 해외 시장 비중을 높여 현재 30%인 매출비중을 2015년까지 40% 이상 높일 계획이다.

LG생명과학은 당뇨 및 고혈압 치료제 등 신약과 바이오 의약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의약품 공장인 오송캠퍼스를 구축하고, 고혈압 치료제와 항체 임상샘플용 벌크 등을 생산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LG의 화학 사업은 4사로 분할한지 10년만에 기업가치가 35배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창출했다”며 “2011년 5월26일 기준 화학 계열사 시가총액은 43조1739억원으로 분할 이전 1조2397억원보다 35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30>